

■ 괴운(槐雲) 칼럼



기러기의 덕목

권해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어느새 가을이 한창이라 하늘에는 기러기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계절이다. 우리는 예부터 기러기에 대한 말을 전해 듣고 있다. 필자는 가끔 학창시절에 배웠던 박목월 시(詩), 김성태 작곡의 '이별의 노래'를 듣는다. 이 노래 가사는 <기러기 울어 예는 하늘 구만리, 바람이 싸늘 불어 가을은 깊었네, 아아 - 아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로 기러기가 나오는 슬픈 노래이다.

전해오는 고사(故事)에 보면 한(漢)나라 중랑장(中郎將) 소무(蘇武)가 무제(武帝) 원년(BC100)에 사절로 북쪽 흉노에 갔다가 체포돼 북해 기슭에서 15년간 굶주림과 추위와 싸우다가 소제(昭帝) 6년(BC81)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 고사가 근원이 되어 편지나 문안에 기러기 안(雁)자를 넣어 안서(雁書), 또는 안신(雁信), 안찰(雁札), 안백(雁帛)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편 톰 워삼(Tom Worsham)이 쓴 '기러기 이야기(The Story of Goose)'란 책을 보면 기러기는 먹이와 따뜻한 땅을 찾아 4만km의 먼 길을 날아가는 '기러기의 슬픈 이야기'로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기러기는 다른 짐승들처럼 한 마리의 보스가 지배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기러기는 리더를 중심으로 'V'자 대형을 유지하며 삶의 터전을 따라 떠나면 여행을 시작한다. 가장 앞에서 날아가는 '리더의 날갯짓'은 기류(氣流)와 양력(揚力)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선두에 선 '대장 기러기'는 뒤에 따라오는 동료 기러기들이 혼자 날 때보다 70% 정

도의 힘만 쓰면 날 수도 있듯 맨 앞에서 운명으로 바람과 마주하며 용을 써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먼 길을 날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낸다. 우리가 듣는 그 울음소리는 실제 우는 소리가 아니라 앞에서 거센 바람을 가르며 힘겹게 날아가는 리더에게 보내는 응원의 소리이다.

기러기는 부산에서 서울 간을 왕복 40회에 해당하는 머나먼 길을 옆에서 함께 날게 짓을 하는 동료와 서로 의지하며 날아가는 셈이다. 만약 어느 기러기가 총에 맞거나 아프거나 지쳐서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다른 동료 기러기 '두 마리'도 함께 대열에서 이탈하여 지친 동료가 원기를 회복해서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동료의 마지막을 함께 지키다가 무리로 다시 돌아온다.

어쩌면 미물(微物)인 새가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제일 앞에서 나는 기러기가 지치고 힘이 들면 그 뒤의 기러기가 제일 앞으로 나와 리더의 역할을 바꾼다고 한다. 이렇게 기러기 무리는 서로 순서를 바꾸어 '리더의 역할'을 하며 길을 찾아 날아간다. 서로 돕는 습기와 그 독특한 비행 기술이 없다면 기러기 떼는 매일 수백 Km를 날면서 해마다 수천 km를 이동하는 그 비행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의 의미를 깨우치게 한다.

그리고 기러기는 예부터 부부 화목과 남녀간의 애정을 상징하고 있다. 지금은 민속촌이나 향교에서 겨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

지만 어릴 적에 시골에서 전통 혼례식의 폐백(幣帛) 때는 기러기 모형을 놓고 예(禮)를 올렸다. 이것은 기러기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덕목을 사람들이 본받자는 뜻이다. 첫째는 기러기가 가진 '사람의 약속'을 영원히 지키는 덕목이다. 기러기의 보통 수명은 15-20년인데 짝을 잃으면 결코 다른 짝을 찾지 않고 홀로 지낸다고 한다. 둘째는 '상하 질서'를 잘 지키고 날아 갈 때도 행렬(行列)을 맞추어 앞서가는 기러기가 울면 뒤따라가는 기러기도 화답(和答)을 하며 예(禮)를 지키는 덕목이다. 세 번째는 기러기는 왔다는 흔적을 분명히 남기는 속성의 덕목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한다고 규정(規定)짓기는 어렵지만 우리에게 적어도 누군가에게 의미(意味)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삶이라도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삶,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행복의 가치를 줄 수 있다면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아픈 사람에게서 치유의 존재가 되어야 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나누어 주며, 인정이 메마른 곳에는 사랑의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도 비오는 날 우산을 들어주는 여유가 있으면 더욱 좋고, 그것이 어려우면 함께 비를 맞는 것도 큰 위료가 될 것이다. 안동 권문들도 기러기의 덕목과 습기, 리더십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람 있는 나날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속의 한방건강

행복의 재발견



권희완 (시중공파 37세)
한의학박사/안양지역종친회
3축관절스윙 골프아카데미 원장

1. 행복 하세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행복하세요!"라고 서로 말하면서 헤어졌는데, 돌아오는 길에 나는 정말 행복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 '내내 행복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이르자, '행복'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내 마음에서 정리가 되어 있다고 느꼈다.

사전에서 '행복(幸福, happiness)'은 희망으로 나아가는 좋은 감정, 욕구나 욕망에 대한 만족감, 즐거움과 여유로움, 불안감 없는 평안함' 등이 적절히 열거되어 있다. "행복하세요?"라고 물으면 그 대답에 참고할 수 있는 심리적인 말이다.

결국 이 말들은 정서적 상태이거나 느낌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살아 가면서 당연하는 다양한 요인들인 건강, 돈, 명예, 직업, 인간관계 등의 결합으로 정리되어 표현되는 말이다.

나는 내가 장만한 관절골프스윙법을 이 세상에 펼치고 있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과정 속에 있고 결과가 미흡하여 여유가 없고 평안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열거된 항목 중 하나인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 행복하다고 말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체로 의례적인 인사말이지만, "행복하세요!"라고 서로에게 말하면서, 우리는 행복의 의미와 이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 요인들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하고 그 가치들을 마음에 담고 있을까?

2. 행복을 느끼는 정서
행복을 느끼는 성향은 가치나 정서와 밀접하다. 긍정의 정서가 높을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요인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며, 이 소중함은 귀함으로 귀결될 것이다. 반면에 부정의 정서가 크다면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부족한 요인에 비중을 더 두어 현재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더 더우려 하며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감추거나 폐기하려 할 것이다.

성경에서 선악과를 하나만 몰래 따먹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벗은 몸이 부끄러워 그 앞에 못나갔다'라는 말은 나의 생각을 깊게 만든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즉 보다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으로 보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말이다.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는 벗은 몸이 부끄러워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 먹고 나니 눈은 밝아져 벗은 몸이 부끄럽게 느껴진 그들의 의식도 성장 및 발전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되어버린다. 진리의 높은 관점에서 멀어진 개인의 시점은 송고한 출산과 육아 등도 다 고통이 되어버린다. 그 고통은 불행이다.

3. 의식의 확장

1) 의식(意識, Consciousness)
사람이 아파서 혼수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면, '의식이 돌아왔다'라고 말한다. 의식(意識, Consciousness)이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이며, 이 인식은 사물이나 관념 등을 구별하거나 식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의식이 있다는 것은 사물이나 관념 등을 구별할 수 있도록 나의 정신작용이 깨어있는 상태이며, 이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의식은 현재의식이다. 현재의식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또한 주어진 자극 안에서 반응하는 감정의 형태이지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 인식이 없이 소위 '맹매리'를 할 수도 있다.

2) 무의식

(無意識, Unconsciousness)
내가 의식이 없어도 내가 살아있고 나는 활동한다.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의식의 작용이다. 내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나를 지배한다. 때로 나의 의식이 강건하지 않으면 나의 의식을 채받고 올라와 나의 의식을 지배한다.

나의 무의식이 얼마나 크지를 나의 의식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알기가 쉽지 않다. 그 무의식은 나의 유전적, 본능적 정보를 담고 있으며, 나의 현재지역에서는 망각되거나 쉽게 인출하지 못하기도 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무의식에는 이성적이고 발전적인 초자아의 높은 의식도 담겨 있다.

3) 의식의 확장

의식의 성장은 나의 현재의식을 긍정의 가치와 정서를 지니게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보다 정말 의식의 성장에 필요한 것은 나의 무의식이 무한히 크다는 것을 나의 현재의식이 인식하는 것으로 이는 의식의 확장이며 성장이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인간생명의 거대한 바탕으로, 인간의 의식적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생각했다. 물위에 떠있는 작은 부분이 의식이라면 물속에 잠겨진 더 큰 부분이 무의식이라고 비유하고, 이 무의식 영역 속에 추진력, 정열, 억압된 관념 및 감정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았다.

4. 행복의 재발견

행복의 요인은 객관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행복을 느끼는 마음은 개별적이며 주관적이다.

이제 나의 현재의식으로만 행복을 바라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의식에서 출발의 여지가 무한히 놓여있는 나의 무의식까지 포함된 나의 관점과 시선으로 행복을 바라다보자. 또한 내 의식을 높여 주는 선악과적 가치로 행복을 바라다보자. 내안에 또는 주변에 언제나 함께 했던 또는 할 수 있었던 작지만 고귀한 행복을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키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증진되는 우리는 언제나 행복을 누리는 현명한 청춘이다.

■ 이달의 시

들국화

권순채

내 건너 산기슭
덤불속에
노오랗게 피어난
너의모습이
날이면 날마다
더욱 빛나네

씨늘한 날씨에
단풍이 드는데
너는 노오란 밭짓나

더 진한 향기를 내 품네

물어오는 산들바람에 속삭이며
꽃잎들도 어울려 춤을 추네

철새들이 날아가고 날아오면
가는계절 아쉬움에
눈물짓다말고
터없이 맑게 웃음짓네

북아공파 대구파친회, 선현의 유적지 탐방



북아공파 대구파친회(회장 권태광)에서는 10월 29일 선현들의 삶과 정신을 배우고 파친간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해 선현의 유적지를 탐방했다.

봉화 답십마을 충재 권번 선생의 역사박물관을 견학한 후 삼계서원과 영주 무성마을 등을 둘러보았다. 권정학 총무

서울산악회 제331차 정기산행 안내

서울산악회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23년 11월 19일 10시(시간엄수)
- ♣ 장 소 :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1번 출구
- ♣ 산행지 : 아차산
- ♣ 준비물 : 간식, 식수, 개인 필요장비

- 회 장 권영복 : 010-2456-6865
- 등반대장 권오윤 : 010-9027-6179
- 총 무 권순휘 : 010-3797-1874

2023년 11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영복

서울지역종친회 월례회

회원 여러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 11월 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일시 : 2023년 11월 12일, 일요일, 12시
- ♣ 장소 : 마포구 공덕2동 제1경로당

◆ 연락처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23년 11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승구